

대한민국 검찰은 죽었다

검찰, 용산참사 생존한 철거민에만 중형 구형



▲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고 이상림 열사의 아들이자,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장인 이충연 위원장이 징역 8년을 구형받자 유가족 전채숙 님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 : 시사N]

지난 21일 검찰은 용산참사에서 생존한 철거민 9명에 대해 특수공무 집행방해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징역 8년에서 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공판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검찰의 진압은 적법한 공무 집행으로 볼 수 없을뿐더러 검찰 역시 발화 원인을 정확히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철거민들에게 덧씌워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상' 혐의는 무고요, 오히려 경찰과 검찰에게 각각 살인진압과 무고의 죄를 물어야 마땅합니다.

진압작전 적법하고, 정당한 공무집행이었는데?

검찰이 수사기록 3천 쪽을 은폐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한 가운데 진행된 재판 과정에서도, 이미 기존 검찰의 주장과 달리, 무리한 진압작전이었음이 경찰 특공대원과 화재 전문가들의 진술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특공대장도 인화물질이 어느정도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진압작전을 수

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특공대원의 경우 2차 진압 당시 "내부에 있는 시너 냄새로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정신이 없었다"고 증언했으며 또 다른 경찰특공대원도 "만약 내가 지휘관이라면 상황이 어려워 진압 작전을 보류했을 것"이라며 당시의 위험한 상황을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소방대원은 "내가 경찰특공대장이었다면 진압 작전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정황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특공대장은 당시 망루 내 진압 작전을 지휘하던 제1제대장에게 "아직 멀었나? 내가 올라갈까?"라며 무리한 진압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상부의 지시에 따라 철거민들의 안전을 무시한 채 진압과 검거에만 주력한 경찰의 강경진압이 참사를 불러온 것입니다.

때문에 인권기준과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채 공권력을 위법하게 행사하였으므로 적법한 공무집행을 전

제로 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특공대원, "화염병 보지 못했다", "적개심 때문에 (거짓) 진술했다."

검찰은 '철거민들이 화염병을 던져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이 숨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사실과 달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특공대원 10명 모두 화염병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는 것을 증언하지 못했습니다. 당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철거민이 화염병을 던졌다'고 말했던 권모 대원조차 "화염병을 보지 못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심지어 "분노와 적개심 때문에 (거짓) 진술했다"고까지 하였습니다.

또 다른 발화 원인 있다

또한 화염병이 아닌 다른 화재 원인에 대해 신빙성 있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현장검증에서 드러났듯, 망루 안에서 철거민이 사용한 발전기나 경찰특공대가 사용한 전동절단기가 화재의 원인일 수 있

다는 다양한 증거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화재감식관 역시 당초 검찰에서의 진술과 달리 '화염병 외에 다양한 화재 원인을 고려해야 한다'며 변호인단의 주장에 근거를 더해 주었습니다.

검찰구형은 무고다. 철거민은 무죄다

재판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만 봐도, 검찰이 철거민들에게 적용한 치사상 혐의는 무고가 분명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줄곧 주장하였듯이, 검찰은 화재의 원인이나 화재 원인 제공자를 특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경찰 무죄 철거민 유죄'라는 일방적인 수사 프레임 속에서 철거민들을 기소했습니다. 이것은 정권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의도적인 거짓 수사에 다름 아닙니다. 반면 경찰 진압의 위법성이나 철거용역업체 직원들의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하는 등 불공정성과 편파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정치검찰을 자처했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사망선고

또 검찰은 수사기록 3000쪽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철거민들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였으므로, 증거를 은닉한 죄로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우리는公安검찰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한 채 무리한 구형을 남발하며 철거민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과도한 죄책을 묻은 검찰이, 스스로 '법과 질서를 수호하는 검찰'이라는 국민의 기대에 사망선고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10월 28일, 재판부의 1심 최종 판결이 있습니다. 사망선고된 정치검찰의 눈이 아닌, 국민들의 양심의 눈에 비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모이재!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 1심 선고 공판일인 28일(수) 저녁 8시 "용산참사 진상규명 촉구, 촛불 추모제"가 있을 예정입니다.(장소 추후 공지)

* 11월 2일(월) 저녁 7시 시청광장에서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추모 미사"가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주최로 진행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최후 진술서] 상처받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 망루에 올랐습니다



철거민 다섯분이 희생되시고 해결 점 없이 어느덧 10개월째인 것 같습니다.

망루속에서의 추위와 두려움 망루 4층에서의 공포를 체감하며 생사의 기로에 섰던 저는 돌아가신 다섯분이 마지막에 떠올렸을 얼굴들이 누구였는지 감히 알 것 같습니다. 바로 그동안 건설자본의 탄압에 상처받은 가족들의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재개발과정에서 시정과 구청의 묵인하에 시행사와 시공사 조합에서 사들인 용역강패에 의해 주민들이 폭행당하고,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손에 들려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분노스럽고 답답했습니다. 제 가족구성원인 아내와 어린 자식들이 상처받고 가정생활이 파괴되는

것을 마냥 이해하고 참아 넘길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약하지만 제 권리를 포기한다면 이 나라 국민임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그 각오로 제 가정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망루로 내몰린 철거민들을 인간적으로 보아 주십시오.

참사 이후 철거민들을 테러집단, 폭력세력, 반정부단체라고 하는 낙인을 찍은 경찰과 정치인들에 의해 극심한 혼란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그동안 건설자본의 탄압에 놀려 세입자들이 길바닥에 내몰렸는데도 아무도 관심두지 않았습니다. 분노와 답답함을 해결해 하기 위해서 서로 같은 처지에 있는 철거민들과 인간적으로 서로 돕고 함께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됐단 말입니까

이충연 위원장은 방송 인터뷰 중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희 도와 줄 수 있는 사람 동지들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동지들 욕하지 마세요”하는 목 메인 대목에 공감이 갑니다.

2-3시간만 도와주면 그들의 희망을 세울 줄 알았습니다. 공권력이 투입되어 용산4가 철거민들의 희망을 만 하루만에 산산이 깨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재판장님께서도 이미 통찰하셨을 바, 이 사건의 주범은 망루에 몰린 철거민도, 일방적인 망루 진압을 지시받은 젊은 경찰특공대원들도 아닌 탐욕스러운 자본과 권력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수사기록 3000 페이지를 공개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철거민에게 떠넘겨 화염병을 던져 같은 처지에 있는 철거민 다섯분과 경찰특공대원을 희생케 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경찰특공대원들의 심문과정에서 들어났듯이 철거민들 중 그 누구도 경찰특공대원들을 향해 망루안으로는 단 1개의 화염병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살고자 망루에 올라가서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경찰이 조금이라도 철거민들의 호소에 귀기우려 듣고자했다면, 아니 안전만이라도 고려했다면 이 불행한 사태를 접하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희생되신 다섯분과 저희들은 분명 다른 사람들을 해하려고 망루에 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욕심 많은 자본과 권력의 탐욕으로부터 그 누구도 아닌 상처받은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분노와 답답함을 호소하려고 망루에 오르려 했던 것입니다.

망루 꼭대기로 내 몰린 철거민들에게 마지막으로 재판장님께서 베푸실 온정이 있다면, 희생되신 다섯분 그리고 유가족과 구속된 철거민들의 명예를 회복하여 저희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일상으로 보내 주시길 간곡히 청하며, 최후진술을 마무리합니다.

2009년 10월 21일
최후진술인 김 창 수

* 김창수 님은 지난 21일 검찰에 의해 징역 7년형이 구형되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정운찬 국무총리를 강력 규탄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운찬 국무총리가 “상황에 진전이 없는 현시점에서 유족을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니 시간을 두고 다음에 만나는 게 좋겠다”며 유가족과의 면담을 거부했다고 한다. 지난 추석 용산 빈소를 찾아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눈물까지 흘렸던 총리가 불과 며칠 만에 전혀 판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정녕 ‘악어의 눈물’이었던가. 아홉 달이 넘도록 상복을 벗지 못하고 있는 유가족을 철저히 기만한 정운찬 총리를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우선 우리는 정운찬 총리가 추석 이후 사태 해결을 위해 진정으로 노력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추석 이후 총리실에서는 유가족에게 고작 두 번 전화를 걸어 ‘유가족들의 요구가 무엇인가’, ‘국정감사로 바쁘니 나중에 찾아가겠다’는 말을 한 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과연 사태를 해결하겠다는 자의 자세인가. 상황의 진전이 없는 것은 총리가 당초의 약속을 어기고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방기한 것 때문 아닌가.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정 총리가 사태의 본질을 계속해서 왜곡하고 있다는 점이다. 총리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취임 이후 ‘사건 실체와 범대위의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쪽으로 생각을 바꿨다’고 한다. 또 전철연과 범대위 등 외

부세력과는 대화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정했다고 한다. 심지어 다섯 유가족 사이에서도 대화의 우선 순위를 정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이는 유가족과 전철연, 범대위를 이간질 하려는 저열한 분열 책동이자 정부의 책임을 회피 하려는 전형적인 ‘언론 플레이’일 따름이다. 유가족에 대한 무례임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

‘무리한 요구’로 인해 협상이 어렵다는 말도 년 센스다. 임시상가와 임대상가는 철거민들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개발을 강행해서 결국 다섯 명의 철거민을 죽음에 이르게 해놓고서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처사다.

무엇보다 정 총리는 용산 참사의 본질이 정부의 재개발정책과 공안통치의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진정 ‘사인(私人) 간의 문제’였다면 정 총리는 왜 유가족을 조문했는가. ‘지금까지 시험에서 90점은 넘었다’던 총리의 천박한 인식 수준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운찬 총리는 당장 유가족을 찾아와 정부의 책임을 시인하고 사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라.

2009년 10월 21일

이명박정권 용산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



일어나세요! 문규현 신부님~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단식기도 중 쓰러져 의식불명

용산참사 해결을 위해 11일째 단식 기도 중이 시던 문규현 신부님이 22일 오전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습니다.

심장마비 상태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후에, 응급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십니다.

문신부님을 비롯해, 전종훈, 나승구 신부님께서도 지난 12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용산참사 해결을 위한 시국미사’ 이후 지금까지 용산참사 현장 기도 천막에서 단식 기도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문규현 신부님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하며,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시고 힘주시기를 바랍니다.